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신지애

“우승컵 주인은 나!”

올해 LPGA 첫 4R대회... ‘뒤틀심’ 좋은 신지애 기대

‘영원한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부활, 미국 영건 폴라 크리머의 상승세, 여기에는 ‘새로운 여제’ 로레아 오초아(멕시코)까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자매들이 28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골프장(파72·6천547야드)에서 개막하는 시즌 세번째 정규대회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시즌 첫 우승을 향해 힘겨운 도전에 나선다.

올 시즌 LPGA 투어는 부상 때문에 고전했던 소렌스탐이 개막전 SBS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재기를 선언한데 이어 두번째 대회인 필즈오픈에서는 크리머가 장정(27·기업은행)에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작년에만 8승을 쓸어담은 오초아가 싱가포르 대회에서 올 시즌 처음 기지개를 켜고 5승을 올렸던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도 새로 바꾼 클럽에 적응하며 시즌 첫 우승을 노리고 있다.

여자골프 최강국으로 자부하고 있는 코리안 군단은 이번 싱가포르 대회에서 신, 구 세력들의 거센 물결을 헤쳐나야 고대하던 시즌 첫 승전보를 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역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는 신지애(20·하이마트)다. 새해 벽두부터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국가대항전 여자월드컵과 호주 대회에 참가하며 경기 감각을 조절해온 신지애는 SBS오픈에서 7위에 오른 뒤 한 주를 쉬고 싱가포르 원정에 나섰다.

뒤틀심 좋은 신지애로서는 이 대회가 LPGA 투어에서는 물들어 처음 4라운드도 치르지는 대회라 더욱 반갑다.

타나메라 골프장에만 오면 펄펄 나는 장타자 이지영(23·하이마

트)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지영은 2006년 렉스스컵 매치플레이로 열린 경기에서 미국의 ‘영건’ 모건 프레셀에 5홀차 완승을 거둔데 이어 작년 대회 때도 사흘 내내 승점을 올리며 코스와 찰떡 궁합을 보여줬다.

필즈오픈에서 이틀동안 선두를 지키다 우승컵을 넘겨 줬던 장정은 싱가포르 대회에도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크리머와 다시 격돌한다.

아기 엄마가 된 뒤 올 시즌 두개 대회에서 연속 상위권에 진입한 한희원(30·힐라코리아)도 우승컵에 바짝 다가서 있다.

또한 여객 부상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명예의 전당’ 회원 박세리(31)와 무릎 수술을 받았던 김미현(31·KRF)도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SBS골프가 28일부터 나흘간 오후 1시에 생중계한다.

한편 미국프로골프(PGA)투어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의 PGA내셔널골프장 챔피언코스(파70.7천241야드)에서 혼다클래식을 개최한다.

타이거 우즈(미국)와 최경주(38·나이키골프), 필 미켈슨, 스티브 스트리커(이상 미국), 아담 스콧(호주), 비제이 싱(피지) 등 상위 랭커들은 상당수가 불참한다.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 나선옥(24·코브라골프),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 박진(31·던롭스릭스) 등 ‘코리안 브러더스’ 5명이 출사표를 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28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골프장에서 시작되는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대회를 앞두고 (사진 왼쪽부터)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로레아 오초아(멕시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박세리가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 세계랭킹 6위

지난 주보다 두 계단 상승



‘탱크’ 최경주(사진)가 세계랭킹 6위까지 뛰어 올랐다.

26일(한국시간) 발표된 프로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최경주는 지난 주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작년에 동양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랭킹 ‘톱10’에 진입한 뒤 10위권을 꾸준히 지켰던 최경주는 이로써 역대 최고 순위 기록을 갈아 치웠다.

최경주보다 세계랭킹에서 앞서는 선수는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 스티브 스트리커(이상 미국), 에니 엘스(남아공), 아담 스콧(호주) 뿐이다. 최경주는 약센추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8강에 오른 덕에 초반에 탈락한 상위 랭커를 추월할 수 있었다.

1~5위 선수는 순위를 지킨 반면 6위였던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는 7위로 내려 앉았고 7위에 올랐던 짐 퓨릭(미국)은 8위로 추락했다.

약센추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상금 26만 달러를 받은 최경주는 우즈, 미켈슨에 이어 상금랭킹 3위(153만5천715달러)를 지키는 등 세계 정상급으로 자리잡았다.

골프 권도 회원권거래 전문기관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	골프장	시세
광주	3,500	충청	1,700
남양주	4,400	경북	1,900
경북900	6,400	포항	2,100

성원인 (062)351-0095

‘스키숏턴 대결’



26일 대한스키지도자연맹 주최로 강원도 평창군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2008 스키기술선수권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이 단체로 숏턴 기술을 선보이며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축구 남북협상 결렬

태극기 게양·애국가 연주 등 합의점 못찾아

축구협, FIFA에 중재 요청

다음달 26일 평양에서 열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남북대결과 관련한 남북한 축구 대표단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축구협회 대표단은 26일 방북해 개성자남산여관에서 제2차 실무 협의를 개최했지만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 응원단 방북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이날 아침 육로를 통해 조종연 부회장과 고승환 대외협력국장을 파견했다.

축구협회 유영철 홍보국장은 “협회 대표단이 오전과 오후 세 차례에 걸쳐 북측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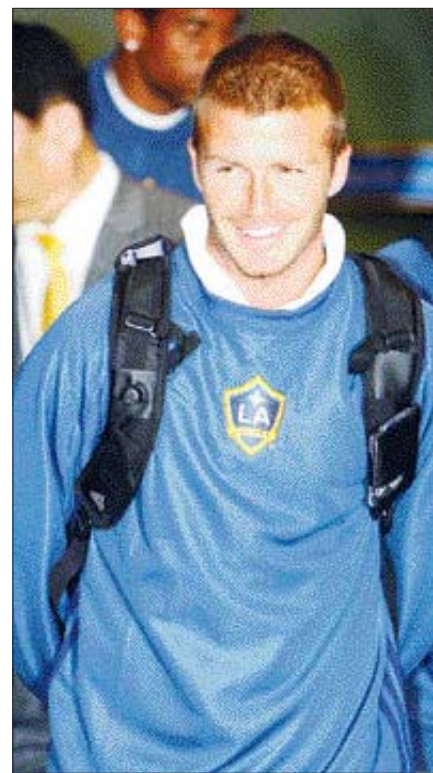
단과 실무 협의를 벌였지만 지난 5일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평양에서 열릴 예선 경기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기는 한반도기, 국가는 아리랑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 대표단은 이에 대해 FIFA의 월드컵 예선 규정에 따라 참가국 국기를 게양하고 양국 선수들이 도열한 상황에서 양국 국가가 차례로 연주돼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북측은 또 대규모 응원단의 방북 응원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3월26일 평양 남북 축구대표팀 대결 성사 여부는 FIFA의 중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웰컴 베컴” 내달 1일 FC서울과의 친선경기를 앞두고 있는 LA 갤럭시의 데이비드 베컴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환호하는 팬들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있음에... 한국 3연승

‘강호’ 스웨덴 3-0 완파 세계탁구선수권 男단체

서상길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26일 중국 광저우에서 사흘째 열린 대회 단체전 예선리그 B조 경기에서 ‘쌍두 마차’ 유승민과 주세혁(이상 삼성생명)의 활약으로 유럽의 전봉 강호 스웨덴을 3-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한국은 폴란드, 체코전 각각 3-1 승리에 이어 3연승을 달려 나란히 공동 1위인 27일 대만과 경기 8강 직행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첫 게임 나선 에이스 유승민이 외젠 페르손에 3-1 역전승을 거두면서 첫 단추를 잘 꿰었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주세혁과 이정우(농심삼다수)가 옌스 롱크비스트와 로베르트 스펠슨을 각각 3-2와 3-1로 물리쳐 완승을

냈다. 그러나 여자팀은 8강 직행에 고비였던 일본전에서 빠이론 2-3 역전패를 당해 3연승 뒤 1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중국 청소년 대표 경력의 귀화 선수 당에서가 1게임에서 후쿠하라 아이를 3-0으로 석아웃시키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문현정(삼성생명)이 히라노에게 2게임을 2-3으로 넘겨줬다. 다시 3게임에 나선 이은희(단양군청)가 후쿠오카 하루나를 3-1로 눌렀지만 믿었던 당에서마저 히라노에게 1-3으로 무릎을 꿇어 승부는 최종 5게임으로 넘어갔다.

문현정은 5게임에서 후쿠하라를 맞아 첫 세트틀 11-8으로 이겼고 세트 스코어 2-2로 맞선 5세트에도 초반 3-1 리드를 잡아 기대를 부풀렸다.

하지만 6-6 동점을 시작으로 이어진 시소 게임에서 끝내 듀스를 허용했고 후쿠하라에게 결국 10-12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자답은 승리를 날렸다.